

[ 국제 ]

# “아·태 자유무역지대 만들자”

## APEC 정상회의 폐막...기후변화도 적극 대응키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9일 지지부진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DDA)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고 이틀간의 회의를 폐막했다.

존 하워드 호주 총리는 이날 이틀간의 APEC 정상회의를 결산하는 ‘정상선언’에 도하라운드의 타결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도하 프로세스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이 최종 결과를 도출토록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상선언엔 도하라운드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강력한 지지와 더불어 도하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협상타결 노력을 재개하라는 긴급 요청이 포함될 것이라고 하워드 총리는 밝혔다.

특히 통상 분야에 대한 별도 성명에서 APEC 정상들은 도하라운드의 협상이 연내 최종 국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치적 의지와 유연성을 보여줄 것을 강조하는 내용도 들어가게 된다.

2001년 개시된 도하라운드는 농업보조금 삭감과 공산품 관세 문제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입장차가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이 재개됐다.

하워드 총리는 정상선언을 통해 농산물 및 공산품 분야를 최대 선결 과제로 구체적으로 지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태 지역 지도자들은 또 역내 경제통합을 강화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의 가능성

을 심도있게 타진하는 한편 통상환경과 ‘인간안보’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예정이다.

인간안보는 군사감축이나 군비축소 외에도 인권, 환경보호, 사회안정, 민주주의 등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진정한 세계평화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개념이다.

APEC 정상들은 전날 1차 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각국이 ‘에너지 집적도’ 25% 감축하고 숲을 대대적으로 복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AP통신은 이번 선언이 전 세계 경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아·태 지역의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뤄진 타협의 결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환경단체들은 실질적인 이행목표가 없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콩=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9일 시드니 총독관에서 존 하워드 호주 총리가 정상 선언문 발표를 마치고 박수를 치고 있다. /시드니=연합뉴스

# “평화조약 분명히 해달라”

## 盧대통령, 부시 공개 압박

노무현 대통령이 7일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회담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에서 대북 적대관계의 공식적 종료를 천명하도록 부시 대통령을 압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신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호주 시드니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언론 회담에서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에 한국 전쟁을 종결하는 평화 조약을 놓고 거북하고 통명스런 대화가 오갔으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부시 대통령이 한국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여부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달라고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 무기를 제거해야한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완전히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전에는 부시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고 말한 내용을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밀어 붙였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조금 전 발언에서 한국 전쟁 종전 선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부시 대통령에게 물으면서 압박했고, 부시 대통령이 그것은 북한 지도자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자 노 대통령은 확실히 불만스러워 하면서 부시 대통령에게 좀 더 의사를 분명히 해줄 수 있느냐며 재차 부시 대통령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놓고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미국이 마카오 은행의 북한 계좌의 거래를凍結하려 할 때 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한국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약속했지만 그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뉴욕=연합뉴스

# 美·日·濠 vs 中·러

## APEC 동맹 구도 가시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는 연내 안보구도가 미국과 일본, 호주, 3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2국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존 하워드 호주 총리는 8일 처음으로 3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안보 회담을 갖고 중국, 북한, 이라크 등 안보현안을 논의했다.

사카바 미츠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중국에 관한 한 삼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들은 북한, 중국, 이라크 등 연내 안보상황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은 이번 비공식 회담의 논의는 인도의 부상이 주제가 되어서 했다며 “이번 회담은 광범위한 현안을 논의했지만 역시 인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들에게 갖는 중요성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다.

지난 4월 3국간 첫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된 데 이어 이번 APEC 회의 기간에 인도, 싱가포르까지 끌어들여 5국 합동 해상 군사훈련이 열리는 등 미국, 일본, 호주가 중심이 된 삼각 동맹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은 한동안 중국의 눈치를 봐오다 이제는 더이상 주저하지 않고 중국을 겨냥한 동맹체제 구축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에 앞서 APEC 회의에 참석한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은 상하이협력기구(SCO)를 계기로 삼아 더욱 결속력을 다지는 분위기다. /홍콩=연합뉴스

#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언제쯤 이뤄질까

## 북핵폐기 전제, 군사 긴장 완화...내년 성사 가능성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화협정에 공동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성사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체제란 관련 당사국들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교류를 하는 정치학적 용어로, 평화체제가 실제 ‘평화의 제도화’라는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 남북한은 물론

북·미 간 관계정상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관계가 청산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아무리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관련국 간에 실질적인 평화 기류가 형성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평화체제 전환은 따라서 양 정상도 밝혔듯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정착을 통해 신뢰가 쌓이고 비로소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확신이 들 때야 핵무기 폐기에 나설 것이라 점에서 평화체제 전환과 북한의 핵폐기는 ‘행동 대 행동’으로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도 높다.

남북 간에도 훈풍이 예고되고 있다. 다음달 초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실질적인 평화체제 전환은 북핵폐기가 완료되고 남·북, 북·미 간에 상당한 신뢰가 쌓인 뒤나 가능하다”면서 “이르면 내년엔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불능화팀’ 단장에 성 김 한국과장

## 11일 방북...북·미 평양접촉 가능성 주목

미국 국무부의 성 김 한국과장(사진)이 오는 11일 방북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3국의 ‘불능화 기술팀’ 단장을 맡아 북한내 활동을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불능화 기술팀 단장을 맡는 것은 2단계 비핵화인 불능화의 첫 조치부터 미국이 책임지고 추진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6자회담에 정통한 북측의 외교 소식통이 9일 전했다.

김 과장은 미국의 6자회담 대표단의 일원으로 지난 6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때도 동행했으며 북한측 대표인 김명길 유엔대표부 차석대사와 긴밀히 접촉해온 인물이라서 그가 불능화 기술팀 활동 외에도 북한과 ‘관계정상



화 현안’을 놓고 협의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연합뉴스

# ‘돌아온 빈 라덴’ 9·11 6주년 앞둔 美 조롱

## “겉만 강할 뿐 속은 약해”

미국 정부가 은신중인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출연한 비디오테이프를 확보해 분석중이며 이 비디오가 최근에 만들어졌음을 시사하는 언급들이 담겨 있다고 CNN 방송과 미국 관리가 7일 밝혔다.

9·11 테러 6주년을 앞두고 공개된 빈 라덴의 비디오 메시지는 미국이 지난 6년에 걸쳐 테러와 전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알카에다와 자신이 견제할 여전한 과시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빈 라덴은 7일 알자지라 방송과 ABC와 CNN 방송 등이 입수한 비디오에서 미국인을 향해 “미국은 겉보기는 강하지만 약하다”고 미국의 약점을 조롱하고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패배를 인정



빈 라덴이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비디오를 통해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의 견제함을 과시했다(오른쪽). 흰옷과 터번을 두르고 나온 그의 턱수염은 2004년 10월(왼쪽)에 비해 짧아졌고 색깔도 회색에서 검은 색으로 바뀌어 엄격한 것으로 보인다. /AFP=연합뉴스

를 언급,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빈 라덴이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4년 이후 3년여만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자격증 취득에서 취업(창업)까지!!

**공인중개사과정 [개강:9월3일]**  
●과 정 : 주간반(10:00~13:50) / 야간반(19:00~22:30)  
●대 상 :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또는 일반인  
●내 용 : 최종 문제풀이(진전도별 진행)  
●교수진 : 한용호·박한수 교수(저자직강)  
●기 타 : 이론부족시 동영상 무료제공

**주책관리사 최종문제풀이 주말반(토·일)모집중**  
(개강 9월 8일)

**정보기술(IT)과정 (개강:매월초)**  
●과 정 : 정보화기초1과정(화·목 19:00~21:00) / 정보화기초2과정(월·수·금 19:00~21:00)  
자격증(사무자동화)과정(월~금 수시)  
컴퓨터활용실무과정(월~금 19:00~21:00)  
●대 상 :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또는 일반인  
●기 타 : 훈련수료 후 개인별 합금(노동부)

●노동부직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정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세무공무원 1800여명 올해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2회 추가 공채 예정 =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강좌적용**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건축직	물리화
-----	-----	-----	-----	-----	-----	-----	-----	-----	-----	-----	-----	-----	-----	-----

◎최선을 다 하지 않고 꿈을 이루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하다!! ◎

**개강: 9월 1일과 15일 주·야 (휴일)반 모집 (후시접수가능)**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 222-4560

79급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www.hanbitgoal.co.kr

**7급 공무원**

개설: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법원직, 감사직, 사회복지, 군무직, 교정직, 농업직, 전산직, 보건직, 취업지원, 기술직

79급 공무원 이론반 첫선도 **개강** / 전담형별·교행문제풀이 **개강**

합격률 3.0000명 **개강** / 11월 11일 11월 11일 **개강**

**한빛공무원학원** **11월 11일 11월 11일**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 234-0234 (전라북도 전주시 동문역 앞)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갈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사온구 연결

원적외선을 방지하므로 핼름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막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갈레오 필름난방은 당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기파 안심하세요.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기파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 (062)262-0101